



UNIVERSAL SEA&AIR CO.,LTD

Busan : 9F Busan Post Office B/D #1,3-Ga, Jungang-dong,Jung-gu, Busan

Seoul : RM1906, Renaissance Tower, 14 Mallijae-Ro, Mapo-Gu, Seoul

www.univsa.com

SUB : 2021년 7월 전망

1. 귀사의 익일변창함을 기원합니다.

미주/캐나다	<p><1> 한국발/ 중국발 운임 GAP이 점점 커지면서, 한국 ALLOCATION 감소로 인하여 선복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음.</p> <p><2> GULF [HOU, TX], EAST 지역은 선사별로 중량제한을 시행하여 무거운 짐은 복킹하기가 어려움.</p> <p><3> 중국발 해상운임과 한국발 운임이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, 선복축소현상이 생기며, 또한 운임인상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함.</p>
유럽	<p><1> 옌텐항 CLOSE 영향으로 유럽노선이 크게 영향을 받았음.</p> <p><2> 중국위주로 스케줄 정해지면서 중국 T/S로 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며, HMM경우 한국발 전량 ROLL 사례도 발생되었음.</p> <p><3> 7월달은 3분기 시작으로 인하여 운임인상이 많이 발생되었음.</p>
중동/아시아	<p><1> 신규선사 알라딘라인이 7월말부터 들어올 예정이나, 얼마만큼 물량을 소화할지는 미지수임.</p> <p><2> 여전히 복킹 잡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며, 선사별로 운임 GAP이 매우 큼.</p>
중국/일본	타지역 대비 큰 이슈가 없음.
대양주	<p>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, 선복잡기 어렵고, 운임도 높게 유지되고 있음.</p> <p>폭발적인 중국발 물량이 근본적인 이유임.</p>

기타>